

독서문화진흥과 기업의 역할

이 현 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1. 독서의 중요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남자아이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했으며, 링컨대통령은 “나는 두 사람의 여성에게 감사드린다. 한분은 나에게 책 읽는 습관을 붙여주신 어머니이고 또 한분은 『앵클 톰스 캐빈』을 써서 나에게 흑인의 슬픔을 일깨워 주신 스토크 부인이다” 리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독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서율과 1인당 GDP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와 함께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천하는데, 데카르트 경영(Tech+Art), 창의와 상상력이 경쟁의 새로운 원천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2. 우리국민의 독서실태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8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학생의 독서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1/5, 독서율은 7%나 하락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월평균 독서량은 1.3권으로 동일하나 3권 이상의 다독자 비율은 14.5%와 17.7%, 전체인구 대비 10권 이상의 다독자 비율은 1.1%와 2.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인당 연평균 도서관구입 비용은 12,000원으로 독일의 1/10(125,000원), 미국의 1/6(73,000원), 일본의 1/4(51,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독서가 부진한 데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가정·학교·직장에서의 독서문화가 미정착되어 있으며, 매체환경이 출판인쇄매체로부터 TV 혹은 인터넷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별 공공도서관수 혹은 장서수 등에서 선진국에 못미치는 낙후된 독서인프라, 공공도서관의 도서관구입비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공존한다.

3. 정부의 독서진흥 정책 평가

① 「독서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대한 의견

- 「독서문화진흥법」은 총 15조로 되어 있으나 총칙(4조) 및 보칙(3조)을 제외하면 본 조항은 8개에 불과하고 내용도 형식적, 선언적이다.
- 조문이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어 구속력이 떨어진다.
- 법 제10조 5항, ‘학교의 장은 사서교사나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이 조항은 의무조항화할 필요가 있다.
- 법 제12조 1항, 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해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선진국처럼 독서의 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예: 영국(독서의 해, 1998-1999), 프랑스(책의 해, 2004-2005), 일본(어린이 독서의 해, 2000) 등)
- 시행령 역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②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언론 및 기업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비중이 낮다.(예: 조선일보의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 한국현대사 100주년 시연제 등의 사례 등 기업의 독서문화 진흥 참여도 사회적 책임(CSR) 이행차원에서 확대 될수 있다.)
- 학교독서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독서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며,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내용 중, 독서논술교육활성화계획(논술교육지도자료 개발, 사이버논술교실 운영, 교사연수 및 동아리지원 등)을 불합리한 지침으로 간주, 즉시 폐지(서울시 교육청)

4. 기업의 독서경영 및 독서진흥 사례

1980년대 중반 이랜드의 경우 독서경영을 도입하였으며, 1995년 동양기전은 본격적인 독서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2000년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영의 차원에서 독서경영을 추진한 여러 사례가 있다.

- 이랜드: 15개 분야 400여 권의 필독서 선정, 임원 매주 1권, 중간관리자 격주 3권을 심층학습(승진심사시 반영)

특 집

- **동양기전:** 91년 사내독서 대학 설립(4년간 8학기 수료 후 졸업, 승진필수요건), 100권의 필독도서에 대한 감상문 제출, 월 1회 독서토론 참석 등
- **삼성화재:** CEO 주도의 독서경영 실시(CEO가 인터넷사보에 추천도서 선정, 서평과 함께 전자메일로 소개), 독서통신교육 실시, 도서 요약 서비스 제공, 사이버 독서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 **아주그룹:** 총 14개 계열사 보유한 인트라넷 사이버 도서관(책마을) 운영, 사내서평대회 및 독서퀴즈대회 개최, 책을 돌려보는 북크로싱 활동 등
- **서진바이오:** 필독서 선정, 직원1인당 연간 25권 의무독서, 독후감 사내통신망 게재 의무화(인사고과 반영)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진흥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 사회봉사단(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삼성은 한겨레신문,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도서관이 없는 농촌, 어촌, 도서 지역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전개

아이들이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최첨단 IT 장비, 냉난방기 및 각종 학습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어촌 초등학교 57개교의 도서관과 민영도서관 76개소를 지원

- **두산그룹 연강재단(맞춤식 도서지원)**

두산그룹은 어린이에게 창의력과 지혜를 심어주는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도서·벽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책을 지원

특히 일방적으로 책을 선정해 보냈던 기존방식과 달리 해당학교 지도교사가 신규도서 및 추천도서 목록을 보고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정하도록 하는 ‘맞춤식 도서지원’

- **미래에셋(희망도서 지원프로젝트)**

미래에셋은 특별한 재정지원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부방을 대상으로 매년 10곳 내외를 선정해 도서 지원

5. 독서진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지원 방안

① 독서진흥을 위한 기업의 역할

독서진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도서관건립 및 보수사업 지원, 독서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이벤트의 주관 및 지원 강화, 독서진흥 관련 단체 지원강화, 독서경영의 활성화, 임직원의 독서봉사활동강화 등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 **도서관건립 및 보수사업 지원**

농어촌, 산간벽지 등 문화소의 지역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독서공간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은 독서 장려를 위해 정부에 ‘도서관 증설 및 활성화’ (44.0%)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7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단순한 도서기증을 넘어선 중소규모의 도서관 건립이나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기업의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방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기업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굴뚝산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한예로서, 현대중공업은 현대예술관과 한마음회관 등 6개의 문화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 운영하는 등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 **독서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이벤트의 주관 및 지원 강화**

기업이 직접 독서진흥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개최하면 사회 기여는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캠페인 및 이벤트에 기업이 동참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독서진흥 관련 단체 지원강화**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여 이들 기관이 독서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도서기증이나 도서관 건립지원과는 달리 수혜기관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독서경영의 활성화**

독서경영은 책에서 얻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기법으로 독서경영의 가장 큰 효과는 ‘토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이다. 수직적인 대화 방식 위주였던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 책을 매개로 CEO에서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전 사원이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독서경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우림건설, 안철수연구소, 메타브랜딩 등으로, 우림건설의 경우, 전 직원이 즐겁게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설회사의 경직적 분위기를 깨뜨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안철수연구소는 책을 통해 기업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면서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메타브랜딩은 독서를 통해 회사의 비전공유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이루고 있어 한국적 독서경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임직원의 독서 봉사활동 강화**

물질적 지원과 병행하여 수혜자가 기업의 정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미취학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독서시설이 없는

특 집

곳에 이동도서관(버스) 운행,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교육 프로그램 보급, 독서활동 및 행사의 적극 참여 등 직접방문 형태의 기업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 4대를 운영해 전국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에게 책과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 축제 및 어린이 대상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하여 독서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② 정책지원방안

정책지원방안으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독서진흥에 공헌한 기업에 대한 시상제도의 확대, 정부와 기업 간 상호협력형 사업의 발굴, 언론의 독서프로그램 활동 지원방안의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도서관 문화 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기업의 기부, 지원 시 정부차원의 재정보조를 병행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책임는사회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삼성이 벌인 ‘희망의 작은도서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대상이 되어 8,0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았던 사례가 있다.

· **독서진흥에 공헌한 기업에 대한 시상제도 확대**

현재 독서진흥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시상하는 ‘독서문화상’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9회(2003년)까지 수상한 179개 수상자/단체 중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독서진흥에 공헌한 기업에 대한 시상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정부와 기업 간 상호협력형 사업의 발굴**

정부(토지)와 기업(건축)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낙후지역 또는 학교도서관의 건립 등을 함께 하는 상호협력형 사업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달서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달서구와 대구은행이 협력하여 건립한 것으로, 달서구청에서는 도서관 건립 부지를 제공, 대구은행 측은 건물을 신축한 사례가 있다.

· **기업의 독서문화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현재 기업이 도서 등을 구입하여 학교, 관련단체 등에 기부할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 제24조의 내용의 기부금 한도액을 소득금액의 10%로 조정하고,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독서문화 지원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 언론의 독서프로그램 활동 지원방안의 모색

일반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등 언론의 독서진흥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MBC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 및 2003 시작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우리사회의 독서진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람직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황금숙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장,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I. 왜 새삼 독서인가?

독서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다. 방송국에서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각 신문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등 IT분야로 몰던 기사를 매주 주말마다 ‘이제 다시 책이다’란 식의 ‘Books’라는 섹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독서진흥 관련 단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엔 검색포털사이트에서도 독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서란 문자가 발명이 된 이후부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을까?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의 장애요인이 많다. TV 및 각종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시청과 컴퓨터를 통한 오락, 채팅 등 사이버 문화 만연으로 인해 우리의 독서시간이 빼앗기고 있으며, 또한 날로 과도해지는 입시경쟁으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또한 독서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가 중요하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 다가올 미래사회는 문화컨텐츠 기반 경제(Culture Contents-based Economy)로 이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미래의 문화사회에서는 독서를 통한 지식 및 정보 획득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경험 등이 매우 중요한 사회이다.